

청원 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소만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청원		
청원인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생곡리 112 대정 111 101동 802호	
	성명	이원진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백종영 변호사 유영우		
소개년월일	2013. 3. 6.		
<p><u>소개의견</u></p> <p>○ 본 청원건은 2012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어린이집 중 민간위탁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의 갑작스런 일괄 사퇴에 대하여 지도와감독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시는 미흡한 점이있어 거창군의회에서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p> <p>○ 공공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는 제반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p> <p>○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의 집단사퇴를 강제하여 영·유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 교사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영위하고 육아업무에 전념할수 없는 환경조성과 퇴직 교사들의 사퇴이유를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청원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 됨.</p>			

소만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부당사항 처벌 청원서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먼저 작금의 소만어린이집 보육교사 집단 사퇴의 장본인들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특히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말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퇴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일들을 소상히 밝혀 거창군민들과 저희들을 믿고 자녀들을 맡겨주신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구함에 있어 사퇴이유가 원장의 권력남용에 따른 위협과 폭언등으로 기인하였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소만어린이집 원장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 보육교사들에게 탄압과 생업을 불모로한 치욕스러운 언어 폭행으로 보육교사들의 사퇴를 강제 하였기에 집단사퇴 보육교사 일동은 영.유아보육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을 위반한 원장을 단호히 처벌, 타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이후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하여,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교사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영위하고 육아 업무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청원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만어린이집 원장은 생업에 엄청난 약점을 이용, 자기 눈에 거슬리면 교사들에게 묘멸감을 주고 공갈 협박으로 일관하여

교사들을 불안하게 하였으며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들을 시켜 보육 업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언1로는 거창군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시 반대 탄원서등에 교사들이 강제 서명하도록 억압 하였고 소만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동동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의회를 방문한 것이 본인들의 자의에서 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2로는 교사들이 탄원서 서명에 비협조한다는 이유에 화를 내면서 내가 나가게되면 교사들도 한명씩 자르고 나간다고 말하며 교사들을 불안에 떨게함과 동시에 특정교사 이름을 거론 “특히000”이라고 실명을 거론하며 공갈 협박하여 치욕스럽게 하였습니다.

증언3으로는 탄원서 작성 시점 영유아 낮잠 시간에 보육교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군의원들 다 무식하다”, “그것들도 군의원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거 보면 기가찬다”면서 특정 교사의 얼굴을 주시하며 군의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였습니다.

증언4로는 연일 화를 내고 교사 개인의 인성을 모독하였으며 탄원서는 보여 주지 않고 서명을 강요, 교사들이 당황해 하자 더욱 화를 내면서 “왜? 부당하나요?”, “나는 여태 어린이집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조례개정으로 나가게 된다, 선생님들도 나처럼 잘못없이 잘려봐라. 잘려봐야 내마음 알지”, “내가 나가기 전에 교사 한명씩 모두 짜르고 나갈 것이다”라고 협박 하였습니다.

증언5로는 아침에 교사들을 모아놓고 조례가 개인을 배제,

법인이 위탁을 받는 걸로 바뀌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차라리 속이 다 시원하다”, “교사들은 살길 찾아봐라(유치원 임용시험을 보든지)”하면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의 권력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다”, “이제부터는 주어진 권력을 다 누릴 것이다”, “당장 한 반 줄이고 원장실 만들거니까 0세반은 모집공고에서 빼고 원아모집 공고를 내보내라”고 지시하였으며, “교사 한명이 남는데 11월 말에 교사 평가를 통해서 교사 한명을 내보낼 것이다”, “졸업때까지 3개월의 여유가 있으니 그동안 직장을 알아보면 된다”, “교사 평가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 4명(주간반)과 원장 1명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또 “원장의 점수로 좌우되는게 아니라 교사들의 점수(80%)로 좌우된다”고 하며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겨 교사간에 이간질과 심적인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증언6으로는 소만어린이집도 국.공립 위탁어린이집 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거보련, 경보련 등 모든 연합회를 탈퇴하여 교류가 차단된 것은 교사들을 무시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증언7로는 일부 학부모들에 의하면 원장이 퇴직교사 사퇴 이유를 무단결근과, 임신교사의 심한 입덧으로 치부하여 사실을 왜곡하였고, 거창군청 직원들과 학부모들의 판단을 흐리게할 목적에서 허위의 사실로 답변하여 퇴직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거창군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조례 개정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일개 개인의 욕심과 감정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태로 영유아들과 학부모들에게 미친 그간의 위법 사항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고 죄를 벌하여 저희들이 사퇴하기까지의 힘든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불의에 대항하다 본의 아닌 사퇴로 겪게 되는
생계의 어려움 또한 살펴 복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
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2. 11.



위 청원인 주소 : 경남 거창군 읍 상리리 개천리 대명APT 101동 402호

성명 : 이 현진

전화 : 010. 7474. 0987



위 청원인 주소 : 경남 거창군 읍 개천리 개천리 에이스타운 101동 205호

성명 : 정 영 호

전화 : 010. 523. 4635



위 청원인 주소 : 경남 거창군 읍 대동리 상화하이빌 207호

성명 : 백현정

전화 : 010. 4629. 3694



거창군 의회 의장님 귀하